

협회소식

김건태 회장, “자조금제도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할 터”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본회 김건태 회장은 “축산업자조금제도의 철저한 준비와 조기정착, 가축분뇨 해결방안 마련, 양돈장 방역관련 문제점 개선화 추진 등으로 안정적인 양돈산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태 회장은 지난 12월 26일 축산전문지 기자들을 초청, 2002년 협회가 추진해온 사업실적과 2003년 협회 중점 추진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건태 회장은 축산자조금제도의 입법화와 양돈업 등록제 등 축산법 개정,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차등 징수 관철 등 2002년 협회가 양돈산업 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건태 회장은 2003년도에는 축산업자조금제도의 철저한 준비와 조기 정착을 통해 돼지고기 소비촉진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가축분뇨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돈분뇨처리대책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처리방법 개발 및 보급, 정책 개발 및 건의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양돈산업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 2002년 양돈장 생산성 및 생산비 조사 실시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본회 지부회원 대상으로

본회는 지난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양돈농가의 정확한 생산성과 생산비 조사를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지도에 도움을 주고, 정책건의에 활용코자 '2002년 양돈장 생산성 및 생산비 조사'를 실시했다.

본회 전국 115개 지부에서 해당 지역 5~6개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농장 일반현황 및 사육, 생산성에 관한 사항, 양돈장 운영시 지출되는 자금 및 생산비에 관한 사항, 기타 농장 현안 문제 등을 주 내용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본회는 1월 23일~2월 28일까지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발표할 계획이며, 농장명을 밝혀주는 농장

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농장분석과 상담을 해줄 계획이다.

도별 전국 양돈인 순회교육 실시

본회 각 도협의회 주최로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 전국 도별 양돈인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본회 전국 지부(회)별 임원(지부장, 부지부장, 총무 등) 3-4명, 양돈조합장 및 임원 등을 참석대상으로 실시되며, 회당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본회는 이번 교육에서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른 기본 방역활동 ▲ '축산물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입법에 따른 자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농가제도 ▲ 최근 고시되어 곧 시행될 예정인 축산법(등록제 도입) 및 가축전염병예방법(거래기록 의무화)의 주요내용 ▲ 산업연수생 제도 및 청정돈육 생산 우수농장 인증제(양돈장 품질위생 인증제) 도입에 따른 양돈농가 계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도별로 본회 김동환 부회장(경기, 강원), 최

<표> 도별 교육일정 및 장소

일자	도협의회	내 용
1. 23	전남	○교육일정 : 14:00~ ○장소 : 도곡 VIP온천(화순)
1. 24	경남	○교육일정 : 13:00~17:30 ○장소 : 부경양돈조합(김해)
1. 28	제주	○교육일정 : 10:30~15:00 ○장소 : 제주양돈조합(제주)
2. 4	전북	○교육일정 : 10:30~21:00 ○장소 : 전북도협의회(전주)
2. 5	충남	○교육일정 : 10:30~15:00 ○장소 : 덕산 관광호텔(예산)
2. 7	경기	○장소 :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
2. 11	충북	○교육일정 : 협의 중 ○장소 : 농업 진흥원(오창)
2. 13	경북	○교육일정 : 10:30~15:00 ○장소 : 협의 중
2. 14	강원	○교육일정 : 13:00~ ○장소 : 농업기술센터 예정

<표> 세부 교육내용

- 양돈경영 사례 발표(최영렬 부회장)
 -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질병예방과 효율적인 차단방역(김준영 수의사)
 - 질병발생 상황 및 문제점 점검
 - 농가 차단방역 관련 준비사항
- 양돈 정책·제도 설명 및 대처방안 모색
 - 자조금, 산업연수생 제도 등(안기홍 전무)
- 질문 및 답변(자유토론)
 - 지부 운영 및 조직 강화
 - 시·군 예산확보 및 정책반영
(지자체 공조 방안)

영렬 부회장(경상도), 황금영 부회장(전라도), 이병모 부회장(충청도) 및 각 도협의회장, 본회 안기홍 전무가 교육을 추진하며, 도별 양돈조합이 교육을 후원 및 협찬한다.

본회, 관급 백신 PED 백신으로 변경 요청

- TGE 감소, PED 증가로 백신 효율성 고려

본회는 지난 1월 21일 관급 백신 TGE, 단독 백신을 PED 백신 또는 TG Rota 혼합 백신으로 교체 공급해 줄 농림부에 건의했다.

본회는 지난 1월 21일 까지 본회 9개 도협의회로부터 TGE 단독 백신을 PED 백신으로 변경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받아 농림부에 이같이 건의했다.

본회는 "최근 양돈농가에서는 TGE 발생률은 감소한 반면 PED 발생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이유로 관급으로 공급되고 있는 TGE 단독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극히 소수"라며, "관급 백신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TGE 단독 백신을 PED 백신이나 TG Rota 혼합 백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본회는 지난해 11월 25일 일선 양돈농가들

의 백신 2중 접종이 어려움과 효율성을 고려해 관공급 백신을 TG Rota 혼합백신으로 변경 요청바 있다.

본회, 양돈수의사회 김준영 수의사와 자문 계약 맺어

본회는 청정돈육생산우수농장인증제 도입을 위해 (사)한국양돈수의사회 김준영 이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우수농장인증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2일부터 본회와 계약을 맺은 김준영 수의사는 청정돈육생산우수농장인증제 추진, 방역·수의관련 자문, 축산법 등 관련 법안 개정시 검토 등을 맡게 된다.

본회, 소비축진 TV광고 추가 방영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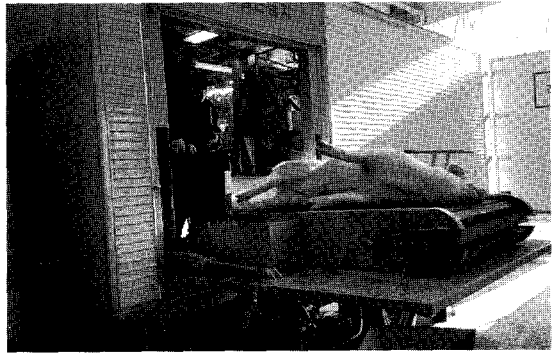
본회는 지난해 11월 30일 돼지고기 소비축진 TV광고가 종영된 이후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TV광고를 2개월 더 추가 방영해 줄 것을 농림부와 양돈수급안정위원회에 건의했다.

본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대전 유성 아드라이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돈가 안정 대책 마련을 협의했다.

살처분용 돼지 전살차량 제작·운영

- 긴급 살처분시 10초당 1두 도축 가능

본회(회장 김건태)는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시, 긴급 살처분 할 수 있는 돼지 전살차량을 지난 1월 21일 제작·완료했다.



이 차량은 구제역, 돼지 콜레라 등 주요 전염병 발생시 위험지역에 투입하여 살처분 대상 돼지를 10초당 1두씩 도축하는 장치를 탑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역과 관련하여 가축 살처분시에는 생매장 또는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살처분하여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살처분 작업에 따른 시간지연으로 방역상 전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대통령 인수위에 농·축산인 소득 보장방안 마련 요청

김건태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겸임)이 지난 1월 15일 대통령 인수위에 향후 농업인 소득 보장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 김건태 회장 및 농업부문 22개 단체장들은 지난 1월 15일 서울 센트로 호텔에서 대통령 인수위 정명채 위원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농업부문의 소득이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직불제, 농업인 복지 개선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부분의 참여확대 등으로 농업인 소득을 보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여러 가지 농업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농림부의 명칭을 '식품농림부', '식품농업부' 등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

외국인 농장 근로자 방역관리 실태 조사 착수

본회 협조하에 경기 23개 시·군 양돈농가 대상 농림부는 최근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유입원인의 하나로 추정되는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본회 협조하에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수가 적은 성남·안양·군포·하남 등 8개시를 제외한 경기도 23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1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본회 시·군지부에서 무작위 선정된 3~5개 농가를 방문하여 실시하고, 불법체류 등 불법 문제를 고려해 조사대상 농가는 익명으로 표기키로 했다.

2002년 결산 정기감사 수감



노동환 감사



유재환 감사

본회 노동환, 유재환 감사는 지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본회가 2002년 1년간 추진한 회무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노동환, 유재환 감사는 본회 일반사업과 지도사업, 자조금 사업, 홍보사업, 제1·2검정부 검정사업 등 2002년 본회 사업계획 대 실적과 예산 대 집행실적을 중심으로 감사를 벌였다.

2002년 본회 홈페이지 접속 건수 68만건 기록

2002년 한 해 동안 본회가 운영한 인터넷홈페이

지(www.koreapork.or.kr) 접속 건수가 사상 최대인 676,803건을 기록, 양돈업계 네티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양돈정보바다'임이 입증되었다.

2002년 1월 1일 271,450건으로 시작한 접속건수는 2002년 12월 31일 현재 953,281건으로 한해 총인원 681,831명이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도의 접속건수 12만4천여건에 비해면 약 5.5배나 늘어난 수치로, 이 같은 성장률은 양돈분야는 물론, 타 산업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김성곤 경북도회장 '경북 농업명장 1호' 선정



김성곤 경북도협의회장

김성곤 본회 경북도협의회장(영천지부장)이 축산분야 제1호 경북 '농업명장'으로 선발됐다. 경북도는 한·칠레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

한 농업인의 사기증진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도내에서 농업부문별 최고의 기술과 경영기법으로 성공한 농업인을 뽑는 경북 농업명장에 김성곤 도협의회장을 올해의 축산부문명장으로 선발했다.

김성곤 명장은 현재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서 황정농장을 경영해오고 있으며, 24년간을 오로지 양돈업에 종사해 오고 있다. 양돈에 불모지역인 경북 영천을 본인의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개발한 사육기술을 인근농가에 확대 보급, 97년에는 '돼지고기 품질개선 최우수단지'로 선정되어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 등으로 인해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자 수출부위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황토곰여를 통한 고품질 기능성식품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남성현 충남도협의회장

산 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충남 아산에서 모든 900두 규모의 아람종축을 경영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도별 양돈인 순회교육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박정유 강원도협의회장 강원양돈조합장에 당선



본회 강원도협의회 박정유 회장이 강원양돈협동조합장에 당선됐다.

신임 박 조합장은 지난 1월 2일 제 6대 조합장 보궐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하여 무투표로 당선되었으며, 1월 8일 취임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박 조합장은 흥천군 농업경영인협의회장, 강원도 농업경영인협의회 간사, 현 대한양돈협회 강원도협의회장 등을 역임해오고 있는 등 지역 양돈산업 및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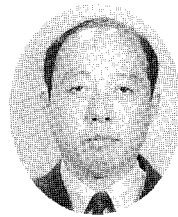
한편 박 조합장은 현재 강원도 흥천군 동면 개운리에서 돼지 1,100두 규모의 영진농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충남도협의회장에 남성현씨 선출

충남도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 충남도협의회 사무실에서 연시총회를 열고, 김현병도협의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남성현씨를 신임 충남도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충남도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남성현씨는 현재 아

전북도협의회장에 이관호씨 선출



이관호 전북도협의회장

전북도협의회는 지난 1월 8일 전북도협의회 사무실에서 전북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윤주성 도협의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관호(48)씨를 신임 전북도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전북도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관호씨는 김제지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에서 1,850두 규모의 관호농장을 경영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부회장으로 강경철(전주완주), 이경래(군산), 총무 최기성(부안), 재무 김홍술(고창), 감사 이금노(전 감사), 최용배(김제)씨를 각각 도협의회 임원으로 선출했다.

화성지부, 복지시설 30곳에 돼지고기 전달

본회 화성지부(지부장 이정배)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인복지시설 등에 돼지고기를 전달해 연말연시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화성지부는 본회가 추진하고 있는 "불우이웃에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코자 지난해

12월 23일 화성지역 성신양로원, 평화의 집 외 28 곳의 사회복지시설에 1,278kg 2백3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전달식은 이정배 화성지부장을 비롯해 지부회원을 7조로 나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인복지 시설 등 전달하였다.

함안지부, 돈사화재예방 위해 소화기 무료전달

함안지부(지부장 함연수)는 지난해 12월 27일 지부사무실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해 논의하는 한편 겨울철 돈사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를 전회원에게 무료로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함안지부는 지난해 12월 12일 본회가 추진하고 있는 “불우이웃에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에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15구좌 30만원을 기탁하였다.

광주·장성지부 호흡기 및 설사병 세미나 개최

본회 광주·장성지부(지부장 차장곤)는 지난 12월 12일 지부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한국 애니멀 클리닉 센터의 김태주 원장을 초빙하여 ‘겨울철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에 관한 주제로 교육이 있었다. 차장곤 지부장은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부활동 등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해남지부 땅끝포크 시식회 개최

수출부위 소비촉진에 앞장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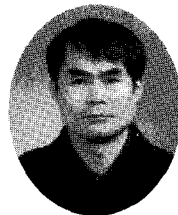
본회 해남지부(지부장 박주남)가 돼지고기 수출부위 소비촉진을 위해 시식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2003년 1월 1일 양일간 ‘땅끝해맞이 해님이 축제’에 참여하여 땅끝포크 시식회를 개최하고, 수출부위 안·등심, 뒷다리살 소비촉진을 위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해남지부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속에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 ‘해맞이 해님이 축제’에 참석한 전국 각지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남지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광객에게 돼지고기 수출부위를 이용한 ‘특선 돼지고기 요리 39선’ 요리 책자를 무료로 제공했다.

신임 포천지부장에 박호근 씨



박호근 포천지부장

포천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지부장에 박호근씨를 선출했다.

신임 박호근(49) 지부장은 경기 포천군 창수면 추동리

에서 1,600두 규모의 호산육종을 경영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부지부장 한영호, 감사 신치선, 가세현 씨를 각각 선출했다.

신임 밀양지부장에 양대식씨



양대식 밀양지부장

밀양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배기호 지부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임 지부장에 양대식 씨를 선출했다. 신임 양대식

(51) 지부장은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에서 2,500두 규모의 미래축산 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부지부장에 설병천, 감사에 배기호, 정득, 운영위원에 최종관, 박수검, 윤혁, 황용일, 김대수, 총무 조현제씨를 각각 선출했다.

신임 남제주지부장에 허승권씨



허승권 남제주지부장

남제주지부는 지난 12월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김태부 지부장의 임기만료됨에 따라 신임 지부장에 허승권 씨를 선출했다.

신임 허승권(46) 지부장은 제주시 남제주군 대정읍 신평리에서 2,200두 규모의 대일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신임 김제지부장에 최용배씨

김제지부는 지난 12월 10일 협회 사무실에서 지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지부장에 최용배씨를 선출했다. 신임 최용배(51)

지부장은 전북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에서 2,000두 규모의 천일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부지부장에 임석규, 총무 박근수, 재무 강운용, 감사 김도곤씨를 각각 선출했다.

신임 장흥지회장에 위성균씨

- 사무실 이전

장흥지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지회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지부장에 위성균(49)씨를 선출했다.

신임 위성균 지회장은 전남 장흥군 관산읍 하발리에서 1,600두 규모의 형제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부지부장 김원호, 감사 김동욱, 손진호, 운영위원 이진규, 김천웅, 정행근, 총무 김성남씨를 각각 선출했다

한편 장흥지회는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287-18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신임 광양지회장에 강용웅씨

본회 광양지회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지회장에 강용웅씨를 선출하였다.

강용웅 지회장은 광양시 성황동 소재 오뚜기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음성지회 사무실 이전

변경 주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14-9
음성축협 3층

전화: 043)873-7204

팩스: 043)873-7203 **양동**